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 - 연길편]

여러 민족 함께 단결의 꽃 심고 진보의 열매 수확



연길시는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은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을 함께 구축' 총적 목표, '다섯가지 연결' 건설 목표를 둘러싸고 사상인술, 문화인도, 공동부유, 상감융화에 착안하여 여러 민족의 래왕, 교류, 융화를 촉진하고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량호한 국면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 사회구역 주민은 모두 한가족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은 민족단결진보 사업으로 전국에 유명하며 첫 길림성 도시 사회구역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기반 구축 프로젝트 시범구역이고 첫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교양실천기지



▲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 '석류의 집' 단영사회구역 당위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왕숙청



단영사회구역 당위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왕숙청은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번째 플랫폼인 동시에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제1진지"라고 말한다.

또한 7개 군경대오와 공동주둔 공동건설 단위를 결성하고 '대리가족'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부대장병들과 100여명의 여러 민족 독거로인, 결혼가정 아동을 연을 맺게 해 군민의 정을 깊이했음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내 독거로인, 결혼가정 아동들로 하여금 온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홍색영화 관람일' 등 활동을 적극 펼치고 사회구역의 여러 민족 대중들을 인술해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식사하고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 민족 주민들의 령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우의가 갈수록 돈독해지게 했다.

올해 단영사회구역은 주, 시 및 상급부문의 지원하에 단영사회구역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을 설계, 건설하여 원래의 '민들레의 집'을 '석류의 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견학중심의 주요 진지로 삼았는바 전 주 첫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과 전 주 유일한 사회구역 견학중심으로 되었다.

● 관광으로 '세가지 교류' 촉진하고 문화로 여러 민족 마음 련결

2012년에 건설된 중국조선족민속원은 부지면적 9.4만평방미터, 건축면적이 6,145 평방미터로 전국과 전성 견학창작에서의 령감과 소재를 둘러싸고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마케팅 총감독 장진명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해설사, 관광안내어 등을 수정 및 보완했고 풍경구 건설, 전시, 체험, 선전 과정에서 중화문화 기호와 형상을 수립하고 부각시킴으로써 관광이 중화문화를 터득하고 문화자부심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로 부상하게 했다.

올 들어 연길시는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과 중국조선족민속원을 포함한 42개의 상감식 사회구역과 8개의 관광 '래왕, 교류, 융화' 촉진기지를 활용하여 전통 명절 기간에 특색주제활동을 480여차례 전개해 경사로운 명절분위기 속에서 여러 민족의 단결과

융화를 다그쳐 추진했고 하나의 교양 실천기지와 6개의 견학중심의 사상인술, 문화전파, 교양실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참관, 학습,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했다. 이외에도 25개의 연변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시범학교', 32개의 연길시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시범학교'를 설립하여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교양이 학교에서 깊이있게 추동되도록 했다.



▲ 올해 여름철 중국조선족민속원은 관광객들로 북적이었다.

연변 여러 문화단체들 항일유적지 찾아 국경절 기념행사 진행



▲ 소양청항일유적근거지 유적지를 찾은 연변작가협회 산문창작위원회와 소설창작위원회 부분적 회원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맞으면서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연길시 칠색합창단, 연변작가협회 등 단위와 단체들에서는 항일유적지들을 찾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뜻깊게 국경절을 기념하였다.

10월 4일, 연변민간문예가협회와 '우리마을'동호회에서는 공동으로 대항구항일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기음을 리용하여 이동하면서 대항구항일유적근거지에 속했던 훈춘시 밀강향의 해방촌, 하와자촌, 중강자촌, 삼안촌, 영안진 대항구촌 등 주변의 마을들과 중공훈춘현위엠편(성급 애국주의교양기지), 대항구항일유적근거지 병원과 북장공장 유적, 김남극의사 묘소, 훈춘당사전람관, 북일학교엠편, 대항구 13렬사묘비를 찾아 여러 유적지와 전적지에 있던 사건과 인물들을

되새기고 천추에 길이 빛날 련사들의 업적을 기리었다.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부주석 남철은 "우리 련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회원들로 이 같은 행사를 조직하는 것은 사진, 이야기, 기행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잊혀져가는 항일력사와 련사 인물들을 기록하여 세세대대 전하기 위함"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10월 5일, 연길시칠색합창단의 27명 단원들은 리상덕 단장의 인솔하에 돈화시 진한장렬사릉원(성급 애국주의교양기지)과 동북항일련군 한총령밀영문화전람관, 동북항일련군 한총령밀영유적지를 찾아 련사들의 사적을 학습하고 항일가요를 통해 항일영웅과 항일렬사들의 업적을 노래하고 선전하였다. 아침 6시에 연길에서 대형 배스를 리용하여 출발한 일행은 리상덕 단장

으로부터 진한장 장군의 생평과 중요한 전투들인 한총령전투, 대사대전투 등에 관한 정제로운 해설을 경청하였다. 오전 8시 20분에 돈화시 한장향 한장촌에 위치한 진한장렬사릉원에 도착한 일행은 진한장생평전시관을 참관하고 진한장장군묘를 참배한 후 진한장 장군 전신상 앞에서 항일가요를 열창하였다. 다시 장거리 이동으로 10시에 한총령에 도착한 일행은 동북항일련군 한총령밀영문화전람관을 참관하고 전람관내의 진한장 장군 동상 앞에서 항일가요를 합창하여 관광객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단풍이 한창 불타는 한총령호엽곡에 위치한 항일밀영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당시의 열악한 환경과 치열했던 전투 장면들을 되새겼다.

연길시칠색합창단 리상덕 단장은 "칠색합창단은 창단이래 수십차례의 '항일배스' 활동을 조직하여 수많은 련사들의 업적을 노래하고 기념하였다."고 하면서 올해는 연변 우수민간문화단체 기층해민공연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노래를 통해 잊혀져가는 선렬들의 위대한 업적을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10월 7일, 연변작가협회 소설창작위원회와 산문창작위원회에서는 량성룡렬사의 옛집터와 생평전시관이 있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서촌을 찾아 공동으로 "'문학창작에서의 령감과 소재문제' 연구토론회"를 개최하고 흥색관광활동을 진행하였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리승국의 사회하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하서촌 촌민위원회 주임이며 당지부 서기인 원훈이 하서촌 개황과 량성룡렬사의 생평을 소개하고 연변대학 교수 김호웅과 허순, 김정권, 오경희 등 작가들이 문학창작에서의 령감과 소재를 둘러싸고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량성룡 옛집터와 생평전시관, 국방교육기지인 하서촌 1호방공호를 참관하고 50여키로메터 떨어진 소양청항일유적근거지(성급문화보호단위)에 이동하여 련사문화 답사를 진행하였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리승국과 채운산은 "국경 75주년을 맞아 유서깊은 하서촌에서 농촌의 발전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흥색관광기지에서 선렬들의 숭고한 사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작가들이 더욱 좋은 령감을 얻고 실생활에 발을 붙인 더욱 좋은 소재를 발굴하여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김태국기자

전망대

광서땅에서 자신의 풍격과 투지 보여줘라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10월 12일 19시 30분에 광서항공자치구 평과시체육장에서 9승 13무 4패 40점을 기록하고 현재 순위 7위를 달리고 있는 광서평과하로팀(이하 '광서팀')과 2024 시즌 제 27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광서팀과의 3차 상호 전적을 살펴보면 연변팀은 1무 2패로 약세를 보인다. 그러나 그 경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면 연변팀은 전술이나 기술 방면에서 능히 광서팀에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과시체육장에서 진행된 2023 시즌 제 1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두팔을 내준 상황에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69분경 한광휘의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한골을 뽑고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상대를 괴롭혔는데 비록 졌지만 그 골은 광서팀이 흥망에서 내준 첫 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진행된 제 26라운드 경기에서는 연변팀의 차가스가 선제골을 뽑았고 광서팀 용병 도로만이 동점골로 추격하자 66분경 공한과가 먼거리 호선공으로 세계를 경탄케 했다. 그런

데 78분경 허문광의 자책골로 다시 동점이 되면서 아쉬운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제 1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홈장에서 28분과 41분경의 천창걸의 골로 2: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전에 무려 4골이나 허락하면서 감독진과 선수들의 불협화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김봉길 감독이 책임지고 하향했다.

최근 5라운드 경기에서 광서팀은 선후로 운남옥군, 불산남사, 상해가정, 소주동오, 광주 등 팀들과 대적하였는데 한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모두 비겨 팀이 슈퍼리그 진출의 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만약 불산남사나 상해가정을 이겼다면 순위가 3위나 4위로 뛸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연변팀은 이기형 감독이 사령탑을 잡은 후 점차 자기의 특성을 살리고 개성이 있는 팀으로 거듭났다. 비록 한광휘, 차가스, 이보 등이 없는 연변팀이 선수층은 얇지만 승전욕망이 강하고 감독의 의도를 잘 체현하여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갑급 잔류를 실현하여 아무런 부담도 없게 되었다. 남은 경기에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자기의 실력과 풍격과 투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겠다는 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광서팀이 연변에서 3점을 챙겨갔으니 나도 광서땅에서 3점을 챙겨갈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연변팀을 관심하고 사랑하는 모든 축구팬들에게 정제로운 경기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 연변의 정신을 보여주는 연변팀과 강서러신팀과의 경기 한 장면

/김태국기자